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백충기 수석연구위원(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kmj9612@bnkfg.com)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크게 요동쳤던 국제금융시장은 최근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이번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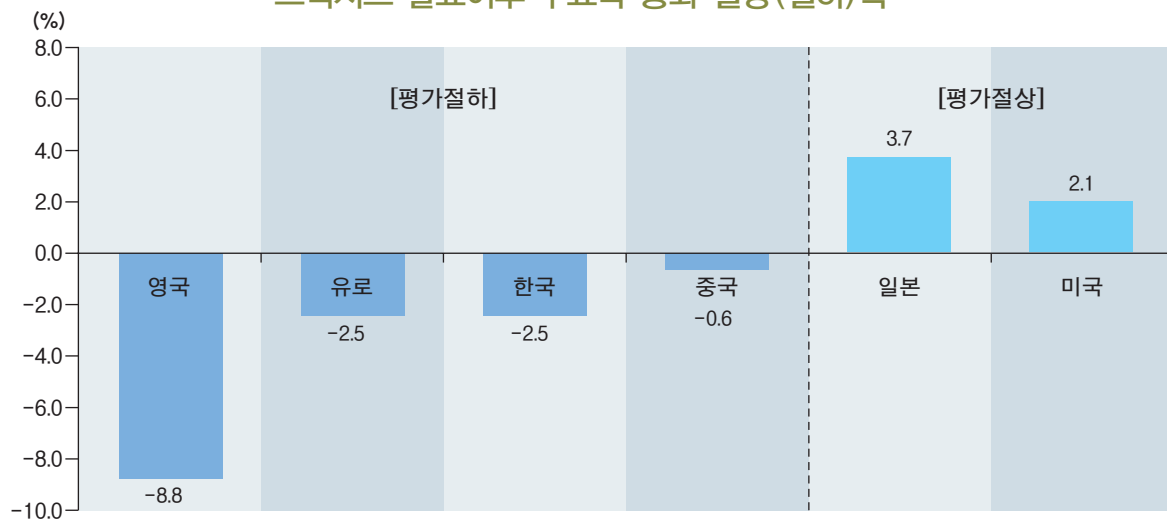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를 지연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며 동남권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권경제의 경우 무역경로를 통한 위협의 전이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국제금융시장은 연초부터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의 주가는 1월중 9.0~15.8% 급락하였으며 미달러대비 신흥국(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통화도 4.9~13.7%나 절하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1.29일), 원유가격 사상최저치 기록(2.11일, WTI 26.1 달러) 등도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EU탈퇴(51.9%)가 잔류(48.1%)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발표 당일 우리나라(코스피 $\Delta 3.1\%$, 코스닥 $\Delta 4.8\%$)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영국의 파운화는 30년래 최저수준까지 추락하고 유로화는 2.5% 절하되었으며 원화환율도 30원 가까이 상승하였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강세를 보였다.

브렉시트 발표이후 주요국 통화 절상(절하)폭¹⁾²⁾



주 : 1) 6.24일 환율 변동폭
 2) 미국은 달러인덱스 기준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주요 요인으로 먼저 예상을 벗어난 투표결과를 들 수 있다. Bloomberg가 2015.9.1일 ~ 2016.6.22일중 일별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EU탈퇴 가능성은 평균 39.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투표 실시 직전인 5월하순 미국 Bank of America의 설문조사에서도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은 영국의 EU잔류(Bremin)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 바 있다. 국제투자자들은 브렉시트에 대응해 사전에 투자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것이며 예상 밖의 결과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또한 세계 3대 경제권인 EU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이번 시장 충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 만일 EU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으로 전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EU 경제권이 붕괴된다면 세계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National Front의 도전이 만만치 않으며 네덜란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서 생겨난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서 EU탈퇴측이 승리한 요인(영국 BBC 분석)

■ EU 분담금의 과도함을 강조

EU탈퇴 찬성측에서는 대표적인 캠페인 홍보문구로 “We send the EU £350 million a week”를 사용함. 이는 영국의 EU분담금이 영국전체 교육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 캠페인 문구를 버스에 부착하여 홍보한 것도 매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

EU 분담금 추정액

구 분	백만 £/년	백만 £/주	백만 £/일
총 분담금	18,777	361	51
(환급금 제외시)	14,361	276	39
(공공분야 수령액 제외시)	9,785	188	27
(민간분야 수령액 제외시)	8,385	161	23

자료 : 영국 재무부

■ 이민자문제 부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전폭적 지지

영국의 이민자수 급증 및 EU의 난민문제 확대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EU탈퇴를 지지해왔음. 특히 Nigel Farage가 이끄는 UKIP(영국 독립당)은 난민행렬 사진에 “Breaking Point(한계점)”이라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적극 홍보하고 로드쇼에 나서는 등 기존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노동자들 결집에 성공.

■ 고령자의 높은 투표율

2015년 영국총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78%)에 비해 청·장년층 투표율이 43~50%대로 낮았음.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55세 이상자가 투표율이 젊은 세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투표권자 중에서 60%가 EU탈퇴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반 EU 감정 자극

과거 영연방국가 위상 및 EU내 높지 않은 영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불만을 자극함으로써 반EU 감정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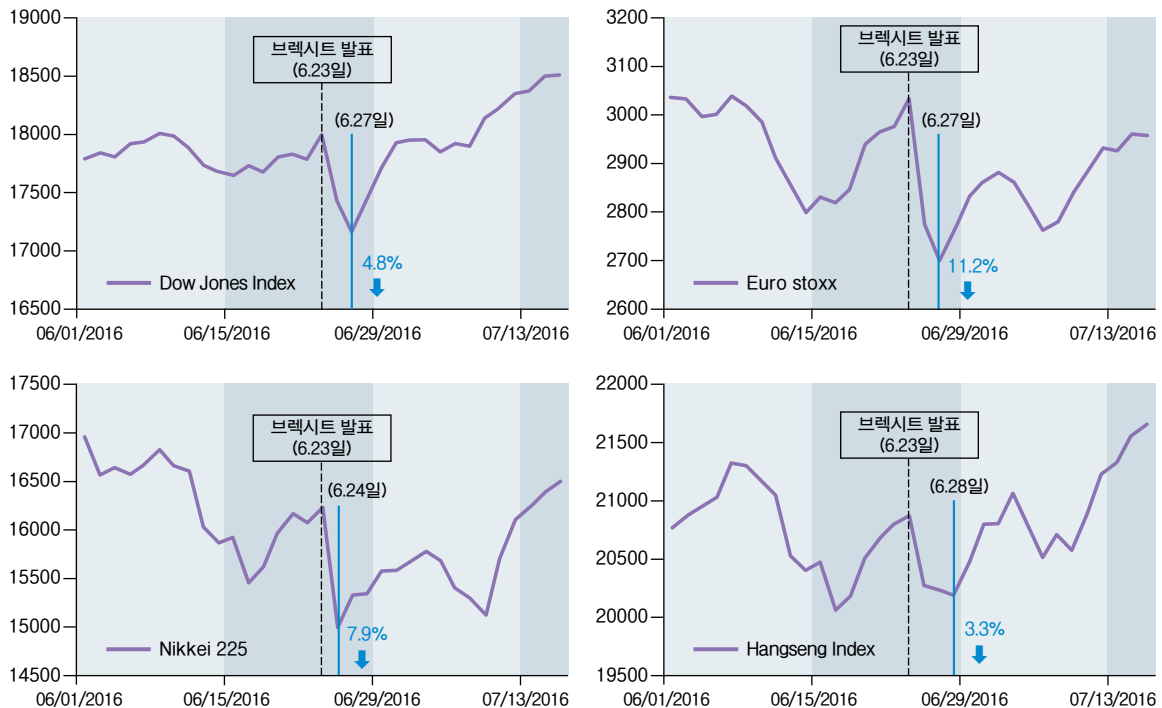
자료 : BBC(Eight reasons Leave won the UK's referendum on the EU, 2016.6.24.)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진정되었으나 근본적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브렉시트 결정 직후 크게 하락했던 미국, 유로지역, 일본 및 중국 등 주요국 주가는 단기간내(1~5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였다.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은 시장참가자들이 브렉시트 결정 직후의 반응이 과도했으며 실물경제에는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1년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테이퍼링과 같은 통화정책처럼 금융시장에 즉각 충격을 주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및 EU경제의 위축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어 이들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불안요인은 계속 잠재되어 있다. 파운드화 및 유로화가 브렉시트 결정 직전에 비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본다.

최근 주요국 주가 흐름



자료 : Bloomberg

세계경제 성장둔화 우려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기관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브렉시트 결정이후 EU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EU내외에서 투자가 위축되어 세계경제 활력이 감퇴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2016.7.25일)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결정이후 1조 6천억달러 규모의 M&A 자금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영국의 실질GDP 규모가 EU잔류에 비해 2020년 3.3%, 2030년 최대 7.7%까지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는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 발표(2016.7.19일)에서 내년도 영국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직전 전망(2016.4월)보다 0.9%p나 하향조정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2017년 영국 경제성장률이 0.4%에 불과하고 2018년부터 침체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경제규모 전망

(%, 파운드)

시나리오		실질GDP 변동 ¹⁾	가구당 비용
단기 (~2020년)		-3.3	-2,200
장기 (~2030년)	중립	-5.1	-3,200
	낙관	-2.7	-1,500
	비관	-7.7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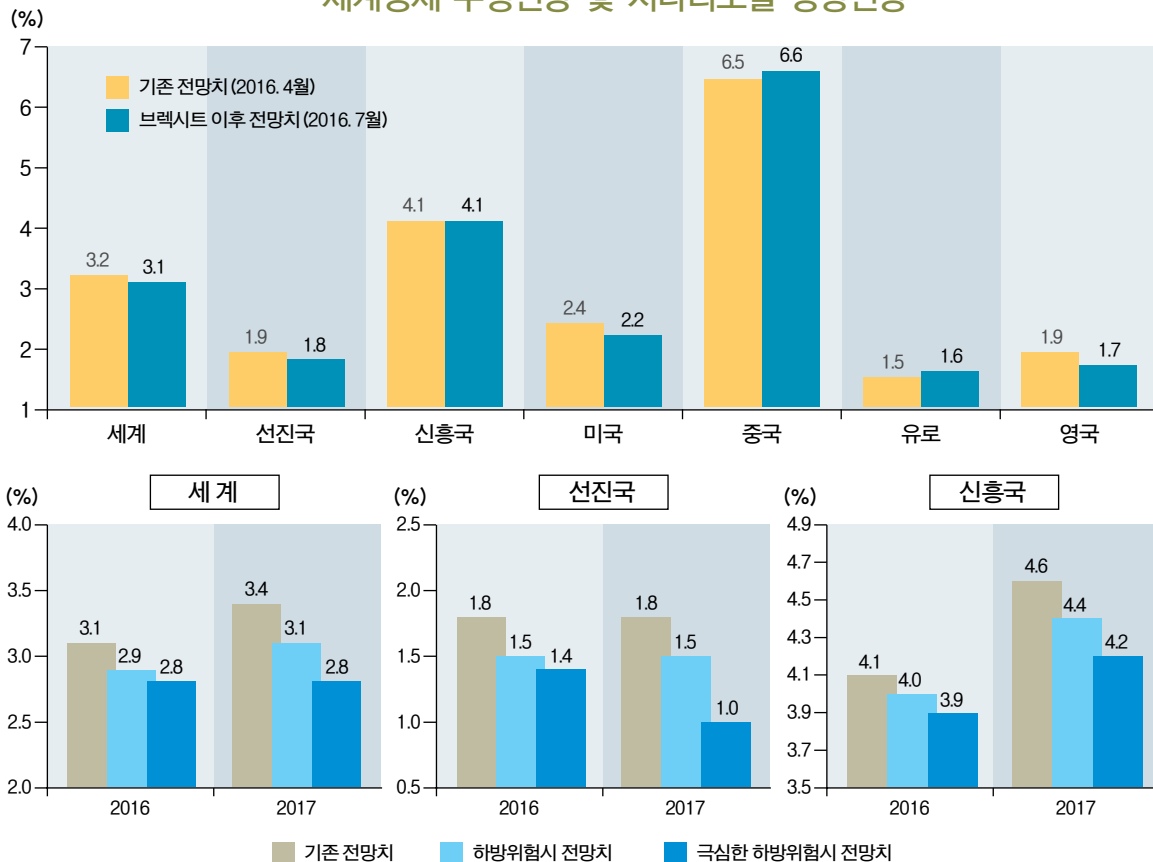
주 : 1) 영국의 EU잔류 대비 변동률

자료 : OECD(2016.4월)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EU경제도 성장세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EU의 실질GDP가 영국의 EU 잔류에 비해 2018년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EU 탈퇴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2016.7.19일)는 세계경제성장률을 2016년 3.1%, 2017년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직전전망(2016.4월)보다 각각 0.1%p 낮춰진 것이다.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 리스크가 높으며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정에 브렉시트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IMF는 브렉시트가 신흥국 보다는 영국,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경제 수정전망 및 시나리오별 성장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7.19.)

동남권경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 및 소비 부진 우려

Bloomberg (2016.7.19일)에 따르면 브렉시트 리스크가 정치적인 경로 (political going-on)와 함께 금융시장(financial linkage)을 통해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그 여파가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2016.6.24일)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국중 자본유출 가능성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연방은행 (2016.7.19일)도 한국이 금융시장 불안기에 자본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59개국 중 두번째)라고 지목한 바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확대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협상의 진전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위안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절하됨으로써 연초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재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risk-averse) 성향이 강화되면 지역경제는 투자 및 소비 위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브렉시트 위험노출 순위(Brexit Risk Ranking)

구 분1)		외화 보유액	자본이동	단기경제 성장률	대EU 수출비중	공공부채	합계 (위험정도)
1	싱가포르	12	13	9	12	13	59
2	베트남	8	9	12	14	11	54
3	홍콩	11	14	14	13	1	53
4	말레이시아	7	10	11	11	10	49
5	중국	2	11	10	8	9	40
6	한국	5	12	6	9	5	37
7	인도	6	6	4	6	12	34
8	태국	3	8	5	10	8	34
9	뉴질랜드	13	1	8	5	3	30
10	호주	14	5	3	1	6	29
11	일본	9	2	1	3	14	29
12	대만	1	7	13	2	4	27
13	인도네시아	10	3	7	4	2	26
14	필리핀	4	4	2	7	7	24

주 : 1) 숫자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 Bloomberg

무역경로를 통해 동남권 수출위축 가능성 높아

영국-EU간 협상이 원활히 진전되지 못하고 EU탈퇴 도미노현상마저 나타나 EU경제 및 세계경제가 위축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권경제는 무역경로를 통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경제는 수출의존도(수출액/명목GRDP, 2015년 기준 69.2%)가 전국(40.6%)에 비해 높아 다른지역에 비해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U는 동남권의 수출중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14.3%) 다음의 최대 수출지역이다. 또한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경로(동남권 → 중국 → EU)까지 고려하면 EU경제 위축이 동남권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¹⁾이 매우 높다.

동남권의 대EU 5대 수출품목중 직접 수출경로를 통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EU 수출중 46.1% 차지), 자동차·자동차부품(13.4%)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계·기계부품의 경우 동남권의 높은 중국 수출비중(21%) 및 중국의 대EU 수출비중(20%)을 고려할 때 중국을 통한 간접경로 역시 지역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남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기계·기계부품이 디젤엔진, 엔진부품, 펌프, 전동축 등 중간재라는 점에서 간접경로에 의한 수출위축도 예상된다.

동남권의 대EU 상위수출품목¹⁾ 경로분석

(%)

동남권 대EU 5대 수출품목	직접경로(A) ²⁾ (동남권 → EU)	간접경로(B) ²⁾	
		(동남권 → 중국)	(중국 → EU)
선박·해양플랜트	46.1	2.7	0.2
자동차·자동차부품	13.4	13.5	1.8
기계·기계부품	12.1	21.0	20.0
석유화학제품	6.7	9.6	0.1
동제품	3.6	0.2	0.1

주 : 1) 품목은 HSK 2단위 기준

2) 수출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의 대중국 상위 5대 기계·기계부품¹⁾ 수출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디젤엔진	엔진부품	기타기계	기체펌프, 진공펌프	샤프트

주 : 1) HSK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EU는 중국 전체수출중 17.1%를 차지(2015년 기준)하는 중국의 2대 수출대상국이다.

영국기업 유치에 관심가질 때

한국은 영국의 아시아 3대, 세계 13대 시장이다. 영국은 금융, 의약, 석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여 EU에 대한 통상환경이 종전보다 악화될 경우 아시아 시장으로의 교역 및 투자를 늘리고자 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예의주시 하면서 동남권 기업들은 영국기업 투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7월 18일 런던금융특구시장 로드메이어(Lord Mayor)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런던-부산간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영국 금융회사의 부산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은 금융부문에서 더 이상 “EU Single Passport rule²⁾”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런던에 본부를 둔 상당수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로지역으로 이전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브렉시트 발표직후 JP Morgan은 1만 6천명에 달하는 영국 내 인력중 1/4 가량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경우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경제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핀테크 기업들이 유럽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진출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부산이 아시아 핀테크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2) EU Single Passport Rule은 금융회사가 EU내 한 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

[참고문헌]

- 자본시장연구원,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2015.12.
- 한국금융연구원, “브렉시트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2016.7.3.
- 한국은행, “영국의 EU탈퇴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2016.5.11.
- _____, “최근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6.7.7.
- BBC, “Eight reasons leave won the UK’s referendum on the EU”, 2016.6.24.
- Bloomberg, “Brexit contagion likely in Italy first”, 2016.7.19.
- Financial Times, “Brexit in seven charts—the economic impact”, 2016.6.27.
- _____, “The 9 ways brexit will affect foreign banks”, 2016.7.4.
- _____, “Anger at JPMorgan’s unhelpful Brexit warnings”, 2016.7.13.
- _____, “Brexit vote triggers falls in London property asking prices”, 2016.7.18.
- Global Counsel, “Brexit : the impact on the UK and the EU”, 2016.6.
- IMF,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s on brexit, Warns of risks to outlook”, 2016.7.19.
-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Brexit: A, Taxing Decision”, 2016.4.
- The Economist, “A background guide to Brexit From the European Union”, 2016.2.24.
- _____, “Brexit brief—The economic consequences”, 2016.4.9.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준법성취 : 2016-206 / 상의일자 : 2016. 6. 1
유효기간 : 2016. 6. 1 ~ 12. 31

Google Play

App Store

계좌개설에서 대출까지- 100% 모바일전문은행

썸뱅크

모바일통장, 포인트적금

은행 방문 없이 한번의 가입으로 모바일통장과
포인트 적금이 동시 개설

정기예금

썸뱅크에서 제안하는 연 최고 2.2% (세전 - 1년제 기준)
- 기본금리 연 1.7%(1년제), 우대금리 최고 연 0.5%p까지 (2016. 7. 1 기준)

간편 신용대출

은행 방문 없이 서류제출 없이 썸뱅크

썸뱅크 환전서비스

주요통화(USD, JPY, EUR) 최대 90% 환율우대

썸뱅크롯데신용카드

L,POINT 최대 5% 적립 서비스

sumbank

기타 자세한 내용은 썸뱅크 홈페이지(www.sumbank.co.kr) 및
고객센터(1800-0500)로 문의 바랍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